

#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결의안

(대표발의 : 정 규 민 의원)

의안 번호	429
----------	-----

발의년월일 : 2020. 11. 24.

발 의 자 : 정규민, 강희문, 신재결,  
허병관, 최익순,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의원

## 1. 주 문

- 별첨 “결의문” 과 같음.

## 2. 제안이유

○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 성장 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법정 지정도시임.

○ 강릉시는 시민과 함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상향식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혁신과 발전 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 3. 이송처

- 국회의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결의문



강릉시의회

## 「제2차 문화도시 지정」

# 결 의 문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성장 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문화도시는 강릉이 최적지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1만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던 우리 강릉은 뿌리 깊은 공동체문화, 멋과 여유가 흐르는 풍류문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문화를 유구한 역사의 쉼터로 차곡차곡 쌓아왔다.

공동체 문화의 총화로 빛어지는 강릉단오제와 지역 사회의 그물망이 되어왔던 계모임은 현대적으로 계승되어 지역민을 연결하는 하나의 축이 되고 있다.

문향(聞鄕)·예향(禮鄕)의 도시로서 일찍이 풍류(風流) 문화를 꽃피웠던 강릉은 차와 커피, 영화 등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와 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대관령부터 동해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자연 태세는 자연과의 조화와 공생을 지향하는 지역민의 바람을 담아 고유의 생태문화로 다시금 거듭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강릉시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시민의 힘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도시의 미래를 구상하는 근본적 철학을 시민 사회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강릉은 문화도시를 통해 사회·경제·환경 등 다양한 도시 영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새로운 생존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문화민주주의로 대변되는 문화도시 시민들의 이러한 열망과 각고의 노력은 문화를 통해 도시 전체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지역 혁신을 앞당기며,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문화도시로서 강릉은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도시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데에도 아낌없이 투여해 진정한 동반 성장을 실현하는 지역의 대표적 문화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제2차 문화도시」 강릉시 지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제2차 문화도시」 강릉시 지정을 위해 시민역량을 총결집한다.

하나, 문화적 관점의 도시 전략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창출한다.

하나, 「제2차 문화도시」 지정 이후, 도시 간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20. 11. 25.

강릉시의회